

# 고양시 위드유(With You)운동 확산을 위한 젠더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젠더인식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박종혁



한인연구보고서 2018-003

## 고양시 위드유(With You)운동 확산을 위한 젠더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젠더인식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 연구 책임자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 공동 연구자

정인호(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김혜인(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저자** 박종혁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http://www.gyri.re.kr)

**인쇄처** 디자인·편집·인쇄 전문기업 북인북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SBN 979-11-89636-04-3 93330

# 목 차

|                                |           |
|--------------------------------|-----------|
| <b>요약</b> .....                | <b>i</b>  |
| <b>제1장 서론</b> .....            | <b>1</b>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3         |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 5         |
| <br>                           |           |
| <b>제2장 젠더문제에 대한 논의</b> .....   | <b>7</b>  |
| 제1절 미투 및 위드유의 운동의 개념 .....     | 9         |
| 제2절 젠더운동의 시작과 우리나라 현실 .....    | 14        |
| <br>                           |           |
| <b>제3장 고양시 젠더문제 현황조사</b> ..... | <b>19</b> |
| 제1절 고양시 젠더문제 관련 조례현황 .....     | 21        |
| 제2절 타 지자체 젠더문제 업무현황 비교 .....   | 28        |
| 제3절 고양시 젠더관련 유관기관 현황 .....     | 32        |

|  |           |
|--|-----------|
| <b>제4장 고양시민 젠더문제 인식조사</b> .....        | <b>37</b> |
| 제1절 고양시민의 미투 및 위드유 인식조사 .....          | 39        |
| 제2절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역할 인식조사 .....      | 46        |
| <br>                                   |           |
| <b>제5장 고양시 위드유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b> ..... | <b>53</b> |
| 제1절 분석내용의 종합 .....                     | 55        |
| 제2절 고양시 젠더문제 정책제안 중요 방향 .....          | 57        |
| <br>                                   |           |
| <b>참고문헌</b> .....                      | <b>59</b> |
| <b>부록</b> .....                        | <b>61</b> |

## 표 목차

|   |    |
|---|----|
| [표 2-1] 국가별 미투 운동의 특징 .....                         | 10 |
| [표 2-2] (사례 1)외모를 평가하며 커피심부름을 시킨 사례 .....           | 16 |
| [표 2-3] (사례 2)회사자리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브루스 추기를 강요한 사례 .....  | 17 |
| [표 3-1] 「양성평등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               | 22 |
| [표 3-2] 「성평등 기본 조례」주요 내용 .....                      | 24 |
| [표 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26 |
| [표 3-4] 「고양시 성폭력 피해자 보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요내용 ..... | 27 |
| [표 3-5] 서울시 젠더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 .....                  | 28 |
| [표 3-6] 고양성폭력상담소 주요 활동 .....                        | 33 |
| [표 4-1] 고양시민의 젠더이슈 표본설계 .....                       | 39 |
| [표 4-2] 표본의 특성 .....                                | 40 |
| [표 4-3] 미투 및 위드유 운동 지지 여부 .....                     | 41 |
| [표 4-4]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 .....                | 43 |
| [표 4-5] 미투운동을 계기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1순위 .....            | 47 |
| [표 4-6] 고양시 소재 젠더문제 상담기관 인지 여부 .....                | 49 |
| [표 4-7] 젠더문제 전담조직과 인력배치 시 수행해야 할 업무(복수응답) .....     | 51 |
| [표 4-8] 젠더프로그램 참여 의사 우선순위의 여부(복수응답) .....           | 52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 .....              | 11 |
| [그림 3-1] 파주여성정치 아카데미 여성정치 스토리텔링과정 .....    | 30 |
| [그림 3-2] 2018 양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 31 |
| [그림 4-1] 미투·위드유 이후, 성차별 이슈 관심도(%) .....    | 42 |
| [그림 4-2] 미투운동이 성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        | 44 |
| [그림 4-3] 미투운동으로 인한 펜스룰이나 남녀간의 갈등 여부 .....  | 45 |
| [그림 4-4] 우리사회 젠더문제의 심각성 인식 .....           | 46 |
| [그림 4-5] 미투운동을 계기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복수응답 ..... | 48 |
| [그림 4-6] 고양시청 내 젠더문제 전담인력 및 조직 필요 여부 ..... | 50 |

## 요 약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한 명의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히면 다른 성폭력 피해자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히고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미투(Me Too)’운동이 급속히 확산됨
- 그리고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위드유(With You)’운동으로 이어짐
-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이 온라인을 통한 가해자의 단죄요구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담론인 젠더 담론으로 발전하여 안전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타파를 위한 성평등시스템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불고 있음
- 미투 운동과 이것을 지지한다는 위드유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권력과 행정시스템을 통해 성 범죄 없는 사회, 양성평등이 실현된 사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적 차원에서 공공행정조직도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음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고양시가 젠더관련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한 고양지역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젠더관련 정책을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임

## 제 2 장 젠더문제에 대한 논의

### 제1절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의 개념

- 미투 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나도 그렇다’ 혹은 ‘나도 고발한다’라는 의미에서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 Too) 자신이 겪은 성범죄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임
- 위드유 운동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공감한다는 의미로 ‘위드 유’에 해시태그를 달아(#With You)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 표현을 하는 것임
- 2006년 여성사회운동가 Tarana Burke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아동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대하여 사회를 바꿔나가자’는 의미의 ‘공감을 통한 권한 부여(empowerment though empathy)’라는 시민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
- 2017년 말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역시 돌풍을 일으켰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제2절 젠더운동의 시작과 우리나라 현실

- 젠더운동은 페스탈로치가 유럽 사회가 산업문명으로 들어서는 18세기 후반기 농촌이 해체되고 공장이나 가정부 등의 일을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처녀들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입법과 신생아 살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이라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여성 성폭력 반대운동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임



- 한국여성민우회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에 따른 불이익조치사례로는 사직중용,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조력자 불이익, 업무 배제 및 변경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제 3 장 고양시 젠더문제 현황조사

### 제1절 고양시 젠더문제 관련 조례현황

- 현재 고양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18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고양시의 「성평등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라고 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이행뿐만 아니라 관련 타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양성평등기본조례임을 밝히고 있음

### 제2절 타 지자체 젠더관련 업무현황 비교

-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젠더정책팀, 젠더폭력예방팀을 구성하고 있음
- 파주시는 2017년 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 스토리텔링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을 공약함
- 양산시는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함

### 제3절 고양시 젠더관련 유관기관 현황

- 고양시의 젠더관련 기관은 고양성폭력상담소, 가족폭력상담소, 여성의 쉼터, 여성근로복지센터 등이 있음

## 제 4 장 고양시민 젠더문제 인식조사

### 제1절 고양시민의 미투 및 위드유 인식조사

-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하여 응답자의 76%가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연령별 응답자는 60대, 40대, 50대, 30대, 20대 순이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젊은층이 지지의사가 높은 것과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투 및 위드유 운동 이후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 이슈 등에 관심이 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학원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특이하게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젠더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질문은 성차별적 사회분위기, 체계적 권력관계, 경미한 처벌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졸이하 학력의 경우 남녀 개인적 관계라는 응답이, 대학원이상 학력의 경우 성차별적 사회분위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미투·위드유 운동과 성평등 수준의 향상 여부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득에 소득이나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음
- 미투·위드유 운동으로 인해 펜스룰과 같은 남녀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이은 폭로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표면으로 드러나 문제발생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공론화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제2절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역할 인식조사

- 고양시민은 연령, 직업,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차

별·성폭력과 같은 젠더문제에 대해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미투·위드유 운동의 계기로 고양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가해자 처벌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 보호 강화가 뒤를 이었음
-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젠더관련 전문기관(고양YWCA, 고양여성민우회, 한 마음 가족상담센터, 덕양가정상담센터, 경기북부해바라기센터, 여성의 전화)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중 고양YWCA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음
- 대다수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청 내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문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고양시민들은 성희롱·성차별·성폭력 관련 젠더문제 전담조직과 인력배치 시 수행해야할 업무로 피해자 상담과 보호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젠더프로그램 개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8.5%에 이르렀음

## 제 5 장 고양시 위드유 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제1절 분석내용 요약

- 고양시민이 바라는 젠더문제 해결방법 중 하나는 관련조직과 전문인력의 채용이며, 현재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젠더문제와 관련된 조직, 재정, 행정지원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규정된 조례를 통해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음
- 다만, 고양시만의 특색있는 젠더관련 사업 발굴, 참여방식의 다양화, 홍보 방식의 강화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은 시민 개인에게 있어, ‘일상’과 ‘생활’과도 연결되는 밀접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평등 문화와 젠더 감수성 확립

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양시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함

- 즉,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젠더관련 차별적 상황을 서로 공유하여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하여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젠더감수성을 극복하는 열린 사회를 만드는 젠더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제2절 고양시 젠더문제 정책제안 중요 방향

- 고양시에서는 젠더 및 양성평등 교육을 주도할 부서의 마련과 담당자의 근무 안정화가 시급하며 성별과 연령에 맞는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교육 외에도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문제 교육도 필요함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제1부시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젠더문제의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관련 예산, 시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전담조직·전담인력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젠더자문관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절



## 제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남존여비의 전통적 유교사상에 젖어 성폭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 명의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히면 다른 성폭력 피해자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히고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미투(Me Too)’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위드유(With You)’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투운동과 위드유운동의 시작이 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성을 남성중심으로 인식하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잠재적 사회적 이슈로 충분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선진국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속도가 거의 동시인 점을 고려할 때, 서구사회의 미투 및 위드유가 동시에 한국사회의 미투 및 위드유가 되었다.

현재 미투 및 위드유는 SNS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하나의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즉, ‘#MeToo’는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나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다.’ 등을 의미하며, ‘#With You’는 ‘성폭력 피해자인 당신의 뜻에 동참한다.’, ‘성폭력 피해근절 운동에 동의한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남성중심 조직이라는 법 관련 조직과 정치인에서 성추행, 성폭력이 있었다는 미투가 이루어졌고, 이후 문화, 예술, 교육,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으로 미투 및 위드유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2018년 2월 성희롱·성폭력 대책협약체를 만들었고, 국회도 이후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도 미루고 그 동안 미루고 있던 성폭력 처벌 강화,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강화 등과 같은 법률의 제·개정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95건의 발안이 있었고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미투관련 상담 건수가 약 51% 가량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이 온라인을 통한 가해자의 단죄요구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담론인 젠더 담론으로 발전하여 안전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타파를 위한 성평등시스템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불고 있다. 즉,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차별적인 현상이 개인이 문제를 벗어난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제된 담론으로서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과 이것을 지지한다는 위드유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권력과 행정시스템을 통해 성 범죄 없는 사회, 양성평등이 실현된 사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적 차원에서 공공행정조직도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성범죄관련 기존 조사분석 및 연구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신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조사되었다.(배복주, 2018).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을 펼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유관기관 담당자의 인식부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예산부족과 낮은 처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고양시도 고양YWCA가정폭력 상담소, 경기북동부 해바라기 센터 등 15개 유관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인 고양시도 사회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젠더이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이 단지 개인의 문제 또는 일부 여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젠더 담론으로 승화시킬 때 공적기관의 역할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지속 발전가능사회가 될 것이다.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이 지역사회 젠더 담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제한다면, 고양시가 젠더관련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는 젠더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미투 및 위드유의 개념을 조사하였고,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는 고양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젠더관련 유관기관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양시 젠더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젠더에 관한 개념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을 여성·아동 혹은 가정폭력·성폭력 등과 같이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일반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관한 인식수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젠더이슈에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수집한 고양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그룹의 응답을 비교하여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 정책적 대안선정에 활용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의 한계는 위드유 운동이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 미투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개념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젠더관련 이슈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양성평등과 성폭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한정하여 실시하였고, 보고서의 내용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젠더는 전통적 문화에 내재된 억압된 성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종, 국적, 종교, 연령, 계층 등 집단의 다양성을 내포하는 사회적 성이라는 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젠더는 양성평등과 성폭력에서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한 고양지역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젠더관련 정책을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다.



## 제 2 장

# 젠더문제에 대한 논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의 개념 제1절  
젠더운동의 시작과 우리나라 현실 제2절



## 제절 미투 및 워드유 운동의 개념

### 1.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의 전개와 여론

#### 1)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의 전개

미투 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나도 그렇다’ 또는 ‘나도 고발한다’라는 의미에서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 Too) 자신이 겪은 성범죄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2006년 여성사회운동가 Tarana Burke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아동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대하여 사회를 바꿔나가자’는 의미의 ‘공감을 통한 권한 부여(empowerment though empathy)’라는 시민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0년 뒤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Harvey Weinstein이 수십 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Alyssa Milano가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제안했는데, 24시간안에 약 1,200만 건 이상의 #Me Too관련 글이 올라와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공개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김가은, 2018)

국내에서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으로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가 퍼져나가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내부 성추문 사건을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범죄문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는 검찰조직 내에서 성추행사건 폭로가 나온 것 자체가 전국적 충격을 가져왔다. 최근 2~3년간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및 워드유 운동은 비교적 젊은 여성이 주축이 되어 전개한 온라인 여성운동과 거리투쟁으로 이

루어진 돌출행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은 돌출이 아닌, 피해에 대한 분노 게이지 상승과 젠더문제를 해결을 위한 집단적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주장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려는 폐시미즘의 최근 변화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전전긍긍하거나, 모멸감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 위협과 협박 때문에 침묵 당했던 여성들, ‘뉘으라’ ‘참으라’라는 말을 해결책이라 제시받았던 여성들이 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김현미, 2018)

## 2) 미투 운동의 여론

2017년 말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화간된 미투운동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역시 돌풍을 일으켰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2-1] 국가별 미투 운동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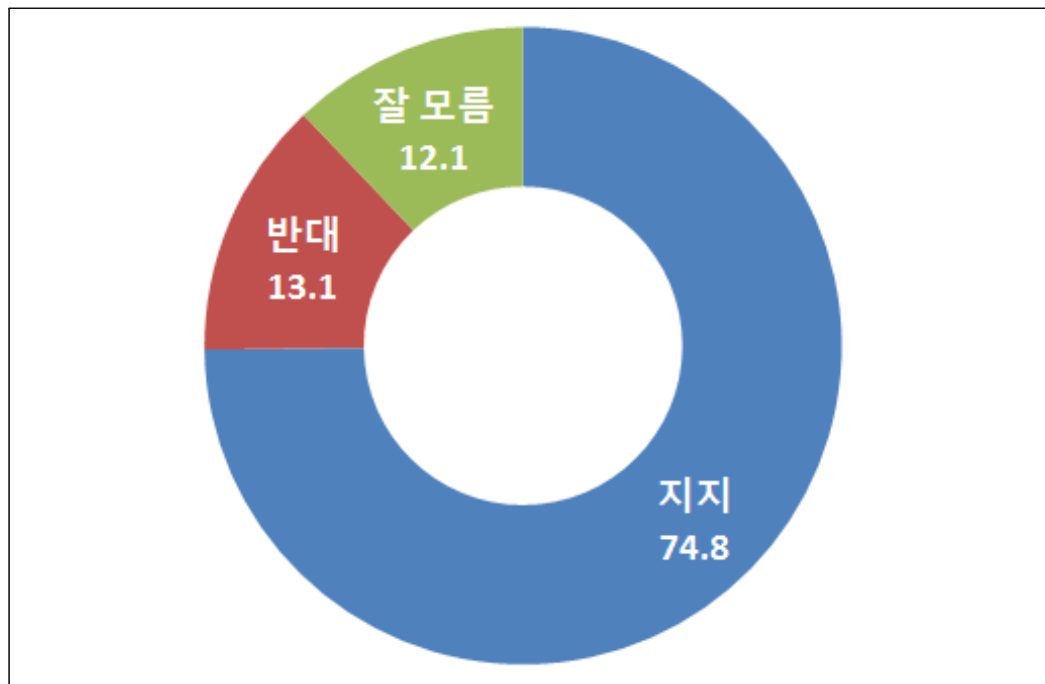
| No | 국가  | 미투 운동의 특징   |
|----|-----|---|
| 1  | 미국  | 할리우드 스타들이 중심이 되어 체조대표팀닥터, 정차관까지 확대                            |
| 2  | 영국  | 정치권 중심(총리수석비서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                                   |
| 3  | 프랑스 | 정부주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제시<br>예) 길가는 여성에게 후따람을 붙면(캣 콜링) 벌금부과 등 추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를 보면, 10명 중에서 8명은 미투 운동 지지를 밝혔다. 또한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권력형 성희롱·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예상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미투 운동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리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성폭력 상담 건수가 약 51% 증가 했으며 미투 운동의 확산이 긍정적임을 평가했다.(국민일보,

2018.4.18; 김가은, 2018)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CBS 현안조사에 따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74.8% 반대한다는 의견이 13.1%,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성인이 12.1%로 집계되었다.

[그림 2-1]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



여성가족부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 절대다수는 20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는 대개 40대 이상의 남성으로 상급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여성학자 권수현박사는 20대 여성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직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궁극적으로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피해를 입증 못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사인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 데 대한 부담”등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묵인한다고 설명했다.(여성신문, 2018.4.18; 김가은, 2018)

## 2. 위드유 운동(With You Movement)의 개념

### 1) 위드유 운동

위드유 운동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공감한다는 의미로 ‘위드 유’에 해시태크를 달아(#With You)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 표현을 하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의 ‘미퍼스트(#Me First)’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가장 은밀하고, 집요하며, 부정적 영향력이 큰 권력 관계로서의 성폭력은 ‘죄’이기 때문에 죄 값을 치르라는 매우 목적이 명확한 운동이다. 굳이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없이도 약간의 정의감과 공정함, 공감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섹슈얼리티를 수치, 쾌락, 은밀함, 사사로운 것으로 간주해 온 한국문화에서 ‘성폭력 피해자 희생시키기’라는 해결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표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자 감각의 변화는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촛불 정국 이후 고양된 참여형 정치행위 덕분이다.(김현미, 2018)

### 2)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의 반대 목소리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 가운데 미국 부통령 펜스의 말을 인용해 직장 내 여성과 접촉을 차단하여 오해받을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자기 방어적 태도(일명 ‘펜스 룰’)를 취하는 남성이 많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대립적 태도의 출현은 여성해방운동의 역사 속에서 젠더갈등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김가은, 2018) 이는 미투 운동을 조직적,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펜스룰로 대응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여전히 개인차원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자칫 여성에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니 미리 거리를 두고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



졌다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의 주요 원인을 사회구조가 아닌 여성에게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에서 제기되는 젠더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만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즉, 사회현상이나 문제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가은, 2018)

## 제2절 젠더운동의 시작과 우리나라 현실

### 1. 젠더운동의 시작

페스탈로치는 유럽 사회가 산업문명으로 들어서는 18세기 후반기 농촌이 해체되고 공장이나 가정부 등의 일을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처녀들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입법과 신생아 살해, Under Gesetzgebung and Kindermord, 1783년>라는 글을 발표했다. 당시 농촌처녀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지만, 일자리를 찾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사산하는 경우가 만연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사산(死産)한 여성에게 풍속법을 적용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로부터 매장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투옥시키는 경우도 다반사이었다. 페스탈로치는 이러한 법률 적용은 사회적 문제 내지 젠더문제를 사산한 여성에게 몰아가는 반인권적 행태이며 불의와 비인간성으로 가득찬 법이라고 비난하였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농촌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려고 열 달의 임신기간 동안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몰래 강가나 후미진 곳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고,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어쩔 수 없이 ‘사산’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임신한 농촌 여성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농촌여성에게 임신을 시키고 도망가서 책임을 회피한 남자, 임신한 그녀에게 온갖 교리로 정죄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부터 쫓아내는 교회 등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페스탈로치는 풍속법에 의한 이러한 악법을 하루속히 고칠 것을 주장했고, 그녀들이 사회와 자신의 가족과 교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삶의 가난과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이은선, 2018)

## 2. 대한민국의 젠더운동과 직장 내 성평등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이라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여성 성폭력 반대운동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국가 젠더 가버넌스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페미니즘의 어젠다를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국가 페미니즘의 부재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원인이며, 미투 운동 이후 우리의 정치 비전도 실질적인 국가 페미니즘이다. 국가페미니즘이란 국가나 정권이 성평등이나 페미니즘 어젠다 실현을 위해 공헌할 역량을 갖추면서 공공기관을 통해 페미니즘이 제도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18)

소위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간혹 특별한 사건의 경우 잠깐 동안 언론 상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이르러 유력정치인, 법조인 등이 성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국내 역사상 전래 없던 미투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2004년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과 2009년 탤런트 J씨 사건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김가은, 2018) 직장 내 성희롱 등 문제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일상에서 밀접하게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며, 권력의 상하관계가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고발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직장의 구조, 즉 성불평등한 직장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일방적 지시가 많은 분위기의 직장
- 비정규직 등 직업안정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은 직장
-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분위기의 회식이 잦은 직장 등

한국여성민우회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뒤 당한 불이익조치 사례로는 사직중용,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조력자 불이익, 업무 배제 및 변경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상사에 의해 일어나는데, 직장 내 근속연수, 인맥, 직위, 등에서 나오는 권력적 폭력은 이후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 많은 경우 사건 종결에만 집중함으로써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항의절차 역시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4.12; 김가은, 2018)

미투 운동의 경우에는 성별 권력관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폭력이 다수를 차지한다. 어찌 보면 단순한 물리력으로 인한 성폭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조직 내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김가은, 2018)

### 3. 젠더관련 주요 사례: 성희롱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즉,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다양한 부당한 인사 조치, 감봉 같은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해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오마이뉴스, 2018.3.22; 김가은, 2018)

[표 2-2] (사례 1)외모를 평가하며 커피심부름을 시킨 사례

| 사 례 내 용   | 해 석   |
|---|---|
| 상사 A는 계약직 여직원 B에게 식후커피를 마시자며 “ <u>예쁜 사람이 타주는 커피가 더 맛있다</u> ”라며 B씨가 커피를 타오라고 주문하였다. 커피를 타오자 “ <u>다른 계약직 여직원들은 아직 나에게 커피를 타오지 않았으니 지금은 B씨가 가장 앞에서 나가고</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를 타오라는 행위: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로 성불평등적 행동이었지만 ‘성적언동’은 아님</li> <li>■ 예쁜 사람이 타는 커피가 맛있다는 발언: 외모에 대한 평가 및 성적대상화이므로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li> <li>■ B씨가 가장 앞서나간다는 발언: 계약직의 불안정</li> </ul> |

| 사 례 내 용                        | 해 석   |
|--------------------------------|---|
|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고 B씨는 이에 불쾌감을 느꼈다. | 한 지위를 자신의 권력으로 압박한 발언으로서 고용문제 등 업무연관성이 높으므로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 |

[표 2-3] (사례 2)회식자리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브루스 추기를 강요한 사례

| 사 례 내 용  | 해 석   |
|--|---|
| 수습직원 E는 건강이 좋지 않아 회식자리에 빠지겠다고 했음에도 <u>상사 F가 회식자리 참석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자리에서 상사 F가 브루스를 추기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추었다.</u><br>브루스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F가 수차에 걸쳐 <u>“(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며) 둘 중 한명만 채용하겠다”란 말을 하여</u> 만약 거부할 경우 E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식자리 강요: 직위를 이용한 강요이지만 성적 압박에 해당하지 않음</li> <li>■ 브루스 추기를 강요 및 채용 언급: 신처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며, 브루스 추기를 통해 채용에 대한 경쟁 의식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수습직원 E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가 이루어진걸로 볼 수 있으므로 성희롱이 인정됨</li> </ul> |

제시한 사례는 직장생활에서 가해자가 행한 행동이 스스로도 성희롱 및 성차별 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화된 경우로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유민이, 2018)



# 제 3 장

## 고양시 젠더문제 현황조사

- 고양시 젠더문제 관련 조례현황 제1절
- 타 지자체 젠더문제 업무현황 비교 제2절
- 고양시 젠더관련 유관기관 현황 제3절





## 제3절 고양시 젠더문제 관련 조례현황

### 1. 개요

현재 고양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18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시의 「성평등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라고 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이행뿐만 아니라 관련 타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양성평등기본조례임을 밝히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연구 목적에 따라 양성평등과 성폭력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양성평등관련 조례 및 주요내용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재원 마련(제5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8조),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등 지정(제13조), 성주류화(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실시(제14조~제1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1조), 공직·정치 참여(제22조~제23조),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제24조), 모·부성권의 보장(제25조), 일·가정양립지원의 시책마련(제26조), 여성인적자원개발 시책 마련(제27

조), 성차별금지(제29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제30조), 취약여성계층에 대한 여성복지증진 시책 마련(제33조), 여성 건강증진과 양성평등한 가족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제34조~제35조),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제36조~제37조), 여성친화도시(제39조) 등과 같은 많은 내용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3-1] 「양성평등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
|----------------------------------|---|
|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  |
| 제13조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지정 등            | - 소속공무원 중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전담전문인력 지정   |
| 제14조 성주류화 조치                     | - 성주류화 조치 의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도구 개발   |
|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 제16·17·18조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 -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실시   |
|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마련<br>-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 제22조 공직참여                        | -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마련<br>- 공무원의 채용,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여성과 남성에 평등한 기회 보장  |
| 제23조 정치참여                        |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마련   |
|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 -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양성평등 실천<br>-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마련                                   |
| 제26조 일·가정양립지원                    |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시책마련 |
| 제27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마련   |
|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 - 성차별금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  |
| 제30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b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하고, 성희롱예방교                               |

|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 가능</li> <li>-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li> </ul>  |
| 제34조 건강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하기 위해 노력</li> <li>-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li> </ul>  |
|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li> <li>-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며 이를 법령 제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li> </ul>   |
| 제36조 양성평등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li> <li>-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인식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li> <li>-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 등에서 양성평등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li> </ul>            |
|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li> <li>-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li> </ul>              |
| 제42조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양성평등기금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li> </ul>  |
| 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 설치 운영 가능</li> <li>-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 설치 운영 가능</li> <li>- 위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일부 또는 보조 가능</li> </ul> |
|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가능</li> <li>-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li> </ul>  |
| 제51조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 단체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가능</li> </ul>   |

각 지자체는 이러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구체화하고, 각 지자체의 각기 다른 정책환경과 정책수요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4년 4월 11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성평등 기본 조례」 주요 내용

|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
|------------------------------------|--|
| 제1조 목적                             | -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제5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제7조 성평등 정책책임관 지정                   | - 제1부시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시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으로 지정함<br>- 책임관 및 실무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
|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                       |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성평등에 기여   |
| 제9·10·11조 성인지 통계·교육·예산결산서 작성       | - 성인지 통계, 교육, 지방재정운용 실시  |
|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 위원회 및 자문기구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 제14조 경제활동의 지원                      | -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br>-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 가능   |
| 제16조 일·가정 양립 지원                    |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아동보육, 육아휴직제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 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시책마련   |
| 제17조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 - 성차별,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성평등 확립에 노력<br>- 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br>- 성차별,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 징계 또는 상응하는 조치 실시  |
| 제18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
| 제21·22·23조 성평등 의식제고·성평등주간·단체 등의 지원 | -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지원<br>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br>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폭력 예방활동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
| 제30조 성평등위원회                        |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약하기 위해 고양시성평등위원회를 설치   |
| 제41·42조 성평등기금 설치·용도                | - 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성평등기금 설치·운용<br>- 성평등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국제협력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지원  |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등에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김선옥, 2016).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정책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규정은 많지 않지만 차이점은 존재한다. 강원도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반비사랑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2조), 이밖에도 경기도(제24조), 부산광역시(제38조), 인천광역시(제46조) 등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는 시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제23조), 전라북도(제31조)는 성평등한 공간조성 및 시설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선옥(2016)<sup>1)</sup>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살펴본 결과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성주류화 관련 내용 4가지(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모두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아직 양성평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여성인재관리육성 관련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향후 조례 개정시 반영해야할것으로 판단된다.

### 3. 성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조례 및 주요내용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 및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메세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포함한다(법제처, 2018).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p>1)</sup> 각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목적, 정의, 시책, 시민권리의무 등 2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조례제정 여부를 확인함

[표 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
|-----------------------|---|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   |
| 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표   |
|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br>-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 |
| 제7조의3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 피해자의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   |
| 제10·11조 상담소 운영 업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상담, 의료기관 인도, 관계기관 협조요청,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
| 제12~17조 보호시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상계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및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전담기관으로 지정   |
| 제28조 의료비 지원           | - 치료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199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같은 성폭력 지원서비스가 운용되고 있으며, 의료·심리치료, 사회복지, 법률구조, 검찰·경찰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2년 4월 18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4]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
|-----------------|--|
| 제1조 목적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   |
| 제2·3조 명칭 및 위차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여성의 쉼터”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움</li> <li>- 가해자에 대한 고소,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해 관련기관 협조 요청</li> <li>- 성폭력피해로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 또는 보호시설로 이동 폭력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조사 연구</li> </ul> |
| 제4조 운영관리        | - 보호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가능  |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소 설치규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7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양시에 위치한 기관의 정식 명칭은 ‘고양성폭력상담소’와 ‘한마음가족상담센터’이다. 성폭력상담원 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 전국 103곳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고양시에는 (사)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분설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17년 기준 전국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각 기관에 대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 제2절 타 지자체 젠더문제 업무현황 비교

### 1. 서울시의 젠더관련 부서 및 업무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젠더정책팀, 젠더폭력예방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세부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3-5] 서울시 젠더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업무  |
|--------------------------------------|-------------------|---|
| 서울특별시<br>여성가족정책실<br>여성정책담당관<br>젠더정책팀 | 젠더정책팀장<br>(젠더자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의 성주류화 추진</li> <li>- 부서장 이상 방침서 협조결재</li> <li>- 시 주요사업 자문 및 협의</li> <li>- 시정 주요회의 참석 및 젠더관점 자문</li> </ul>  |
|                                      | 주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주요업무 성인지 관점 반영 추진</li> <li>-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지원 및 확대</li> <li>- 젠더자문관 자문 반영 모니터링</li> <li>-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li> <li>■ 젠더정책리포트 발간</li> <li>■ 시 젠더업무담당자 지정제 운영</li> <li>■ 간부대상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li> <li>■ 서울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제도 운영 지원</li> </ul> |
|                                      | 주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거버넌스(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사업운영</li> <li>■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 수립</li> <li>■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태조사 및 캠페인</li> <li>■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운영</li> <li>■ 성평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li> <li>■ 서울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제도 운영</li> <li>■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항</li> </ul>   |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업무   |
|--|-------|--|
| 서울특별시<br>여성가족정책실<br>여성정책담당관<br>젠더폭력예방팀 | 주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예방교육 종합계획 수립</li> <li>- 관리자 및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추진</li> <li>- 투자출연기관 찾아가는 특별교육 실시</li> <li>- 2차 피해 관련 주체별 행동요령 교육안 개발</li> </ul> </li> <li>■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상담기구 연계망 구축 및 활동지원</li> <li>-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민간기관, 지방고용노동청 등)</li> </ul> </li> </ul> |
|  | 주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신고제도 정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계시판 개선 및 외부 연계 추진</li> <li>- 사건(진행사건, 종결사건) 처리 모니터링</li> </ul> </li> <li>■ 피해자 심리치유 및 법률지원 연계·관리</li> <li>■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li> <li>■ 성희롱 예방 관련 각종 간담회(직원 및 관련단체) 개최 운영</li> <li>■ 성희롱·성폭력 관련 모니터링, 사례 및 통계 정리</li> <li>■ 가해자 인권교육 추진</li> </ul>   |
|  | 실무사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 및 #WithU센터 설치 지원</li> <li>■ 관리자 및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li> <li>■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li> <li>■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실·본부·국 협력 추진</li> <li>■ 기타 타 직원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li> </ul>   |

## 2. 파주시의 젠더관련 부서 및 업무

### 1) 파주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 스토리텔링 과정

파주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 스토리텔링 과정이 운정행복센터에서 2017년 6월~7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아름다운재단 후원 이뤄졌으며 고양 파주여성민우회에서 주관으로 참가인원은 약 30명 정도였다. 강의주제는 젠더거버넌스 실현, 다르게 보이는 지역예산, 성평등 정책 이해, 젠더리더십, 성평등 조례, 여성정치인 경험 등이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세 개 조로 나누어 파주 의제 찾기, 만약 지방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공약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파주시 의제를 논의하는 후속모임도 있었다.

[그림 3-1] 파주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 스토리텔링과정 (출처: PAJU상상뉴스)



## 2) 성평등정책담당관

파주시는 "여성행복도시 파주!" 를 지향하기 위해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폭력 근절·성평등의식 확산, 여성 안전귀가 시스템 조성, 성인지예산·정책 확대 시행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장 직속 ‘젠더정책담당관’을 설치해 성 평등 가치를 실현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10월 한글날을 맞아 국적불명의 줄임말, 외래어, 한자어를 정비해 ‘시민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나타내면서 ‘젠더정책담당관’을 ‘성 평등정책담당관’으로 개선한다는 시보를 통해 젠더관련 정책실행 여부를 한 번 더 확 고히 했다.(파주시 보도자료, 2018.10)

## 3. 양산시의 젠더관련 부서 및 업무

양산시는 양성평등주간(2018년 7월 1일 ~ 7일)을 맞아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양산! WITH YOU!’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산시보, 2018.07)

양산YWCA(회장 허영미)가 2018년 9월 물금 워터파크에서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세상!’을 주제로 양성평등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양성평등 공감 한마당 무대를 연출하면서 양성평등 의식 함양은 물론 범시민적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양산시보, 2018.09)

[그림 3-2] 2018 양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출처: 2018 양산시장백서)



---

## 제3절 고양시 젠더관련 유관기관 현황

---

### 1.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는 2002년 ‘가족과 성 상담소’로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여성주의 상담을 바탕으로 폭력피해여성의 법적, 심리적, 의료적 지원과 치유회복 상담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여성인권운동의 식 고양을 통해 고양시 내 건강한 성문화 정착과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고양시 관내 초·중·고 (장애/비장애인) 대상 학교 성교육과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교육, 가해재발방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래 성교육 및 학부모 성교육, 공공기관/ 기업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성평등교육과 성매매방지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3-6] 고양성폭력상담소 주요 활동

| 구분                   | 내용   |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tel 031-919-1366)</li> <li>■ 심리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상담</li> <li>■ 사건 지원 : 진술 동행, 의견서 제출</li> <li>■ 의료 지원 :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응급키트) 및 치료비 지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li> <li>■ 법적 지원 : 법률정보 제공, 진술 동행, 무료법률구조 지원, 재판 동행</li> <li>■ 기타 지원 : 보호시설 연계</li> <li>■ 무료법률상담 : 매달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li> <li>■ 치유회복 집단프로그램 : 매년 참가자 모집 후 진행</li> </ul> |
| 건강한 성문화 확산 성폭력 예방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성교육 :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쉼터</li> <li>■ 학부모 성교육 : 학교, 도서관, 복지관</li> <li>■ 장애인 성교육 : 특수학급, 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작업장</li> <li>■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학교, 공공기관, 민간사업장</li> <li>■ 가해자 교육 : 가해 학생, 성인 가해자</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캠페인</li> <li>■ 재판 동행 지원단</li> <li>■ 토론회 개최</li> <li>■ 성교육 워크북 및 자료집 발간</li> </ul>                        |
| 활동가 양성 전문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amp; 성교육강사 양성과정 : 격년진행</li> <li>■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 격년진행</li> <li>■ 상담스터디 &amp; 성교육 사례 연구 : 주 1회</li> <li>■ 장애인 성교육 스터디 : 월 2회</li> <li>■ 사례회의 : 월 1회</li> <li>■ 슈퍼비전 : 분기별 1회</li> <li>■ 워크샵 및 특강</li> </ul>  |

## 2. 고양YWCA본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혼란기를 겪던 영국에서 YWCA운동은 시작되었다. 아더 কিন나드(Lady Arthur Kinnarrd)여사를 중심으로 공업도시에 모여든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여성의 모임과 에마 로버츠(Emma Roberts)여사를 중심으로 모인 여성 기도모임이 1885년 통합, 여자기독교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라는 이름으로 생겨났다.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YWCA는 1백 25개국에 조직되어 활동하며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여성단체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있다.

고양YWCA는 한국 YWCA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YWCA로 1989년 10월 30일 창립되었고, 이후 고양시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고양Y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운동, 생명운동, 소비자운동, 지역사회운동, 환경운동, 공동체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가족사랑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 상담으로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 찾아가는 성교육, 학교성교육, 또래 성교육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과 전문 상담원 교육, 여성 한 부모 모임, 피해여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통합폭력예방교육 안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통합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상담'과 피해자 치유 회복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전화 상담과 대면상담을 주를 이루며 처음 전화 상담으로 시작 된 후 피해자가 위급상황에서 벗어나면 대면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연 상담건수는 1천 6백건에서 1천 8백건 정도이다.

지역사회 안 여성 역량강화사업으로는 가정폭력전문 상담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으로 계속적인 재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소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 여성의 쉼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안정된 생존권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여성들 간의 연대를 돈독하게 형성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생활공동체이다.

처음 입소 후 6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으며 3개월씩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생계비, 아동교육비, 의료지원비를 받는다. 주거지원의 경우 다른 생계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총 4개의 센터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양시여성 근로자복지센터이다. 1998년부터 안산, 부천, 의정부에서 시작되어 2001년 고양시에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관련 상담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월평균 110건에서 12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 전화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유직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있어 지하철역이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련 사업으로는 고양시 내 감정노동자들, 병의원 근무자나 아파트가 많은 고양시 특성상 관리사무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 제 4 장

## 고양시민 젠더문제 인식조사

고양시민의 미투 및 위드유 인식조사 제1절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역할 인식조사 제2절



## 제절 고양시민의 미투 및 위드유 인식조사

### 1. 인식조사 개요

#### 1) 인식조사 배경

고양시민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한 인식조사는 고양시민들이 생각하는 젠더정책, 젠더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고양시를 완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고양시민들의 지지이다. 따라서 고양시민의 젠더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제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투·위드유, 젠더이슈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개요

고양시민의 미투·위드유, 젠더이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0~79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개별 면접 조사이며 2018년 12월 5일에서 12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다. 총 표본은 200명이며, 표본은 성별·연령별·거주지(구)별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표본의 수집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4-1] 고양시민의 젠더이슈 표본설계

(단위 : 건)

| 구분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합계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덕양구  | 8   | 8  | 8   | 8  | 9   | 9  | 9   | 9  | 5   | 4  | 77  |
| 일산동구 | 7   | 7  | 6   | 6  | 7   | 7  | 7   | 7  | 4   | 4  | 62  |
| 일산서구 | 6   | 6  | 6   | 6  | 7   | 8  | 7   | 7  | 4   | 4  | 61  |
| 합계   | 21  | 21 | 20  | 20 | 23  | 24 | 23  | 23 | 13  | 12 | 200 |

이러한 표본수집 절차에 따라 수집된 표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 4-2] 표본의 특성

(단위 : 건, %)

| 구분     |           | 사례수(건) | 퍼센트(%) |
|--------|-----------|--------|--------|
|        |           | 200    | 100.0  |
| 성별     | 남성        | 100    | 50.0   |
|        | 여성        | 100    | 50.0   |
| 연령     | 20대       | 42     | 21.0   |
|        | 30대       | 40     | 20.0   |
|        | 40대       | 47     | 23.5   |
|        | 50대       | 46     | 23.0   |
|        | 60대 이상    | 25     | 12.5   |
| 거주지    | 덕양구       | 77     | 38.5   |
|        | 일산동구      | 62     | 31.0   |
|        | 일산서구      | 61     | 30.5   |
| 최종학력   | 고졸 이하     | 36     | 18.0   |
|        | 전문대졸      | 19     | 9.5    |
|        | 대졸        | 123    | 61.5   |
|        | 대학원 이상    | 22     | 11.0   |
| 직업     | 자영업       | 16     | 8.0    |
|        | 사무직       | 46     | 23.0   |
|        | 기술직       | 14     | 7.0    |
|        | 관리직       | 14     | 7.0    |
|        | 전문직       | 17     | 8.5    |
|        | 가정주부      | 40     | 20.0   |
|        | 학생        | 24     | 12.0   |
|        | 단순직       | 6      | 3.0    |
|        | 무직        | 23     | 11.5   |
| 월평균 소득 | 0~200만원   | 45     | 22.5   |
|        | 201~400만원 | 74     | 37.0   |
|        | 401~600만원 | 39     | 19.5   |
|        | 601~800만원 | 22     | 11.0   |
|        | 801만원 이상  | 20     | 10.0   |

## 2. 미투 운동(Me Too) 및 위드유(With You)관련 인식조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해 지지여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3] 미투 및 위드유 운동 지지여부

(단위 : 건, %)

| 구분            |           | 사례수<br>(건) | 강력히<br>지지함 | 지지하<br>는 편임 | 보통   | 지지하<br>지 않는<br>편임 | 전혀<br>지지하<br>지 않음 | 관심없<br>음 |
|---------------|-----------|------------|------------|-------------|------|-------------------|-------------------|----------|
| 전체            |           | 200        | 32.5       | 43.5        | 16.5 | 4.0               | 1.0               | 2.5      |
| 성별            | 남성        | 100        | 28.0       | <u>36.0</u> | 23.0 | 7.0               | 2.0               | 4.0      |
|               | 여성        | 100        | 37.0       | <u>51.0</u> | 10.0 | 1.0               | 0.0               | 1.0      |
| 연령            | 20대       | 42         | 14.3       | <u>45.2</u> | 21.4 | 9.5               | 0.0               | 9.5      |
|               | 30대       | 40         | 35.0       | <u>40.0</u> | 22.5 | 2.5               | 0.0               | 0.0      |
|               | 40대       | 47         | 40.4       | <u>42.6</u> | 12.8 | 2.1               | 2.1               | 0.0      |
|               | 50대       | 46         | 37.0       | <u>41.3</u> | 15.2 | 4.3               | 0.0               | 2.2      |
|               | 60대 이상    | 25         | 36.0       | <u>52.0</u> | 8.0  | 0.0               | 4.0               | 0.0      |
| 최종<br>학력      | 고졸 이하     | 36         | 25.0       | <u>36.1</u> | 19.4 | 8.3               | 0.0               | 11.1     |
|               | 전문대졸      | 19         | 31.6       | <u>52.6</u> | 10.5 | 0.0               | 0.0               | 5.3      |
|               | 대졸        | 123        | 35.0       | <u>43.9</u> | 17.1 | 2.4               | 1.6               | 0.0      |
|               | 대학원 이상    | 22         | 31.8       | <u>45.5</u> | 13.6 | 9.1               | 0.0               | 0.0      |
| 월평<br>균<br>소득 | 0~200만원   | 45         | 33.3       | <u>37.8</u> | 22.2 | 2.2               | 0.0               | 4.4      |
|               | 201~400만원 | 74         | 33.8       | <u>36.5</u> | 21.6 | 4.1               | 2.7               | 1.4      |
|               | 401~600만원 | 39         | 33.3       | <u>53.8</u> | 12.8 | 0.0               | 0.0               | 0.0      |
|               | 601~800만원 | 22         | 22.7       | <u>59.1</u> | 4.5  | 9.1               | 0.0               | 4.5      |
|               | 801만원 이상  | 20         | 35.0       | <u>45.0</u> | 5.0  | 10.0              | 0.0               | 5.0      |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6%로 200명 중 152명이었다. 지지와 반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4%와 88%로 과반이상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의견은 남성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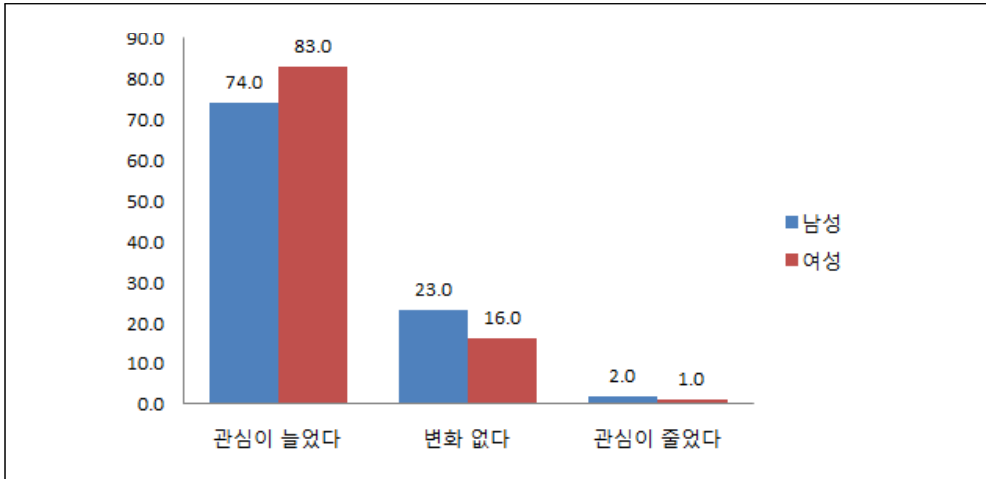
여성이 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미투 및 위드유 운동이 남성보다 여성을 위한 운동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한 지지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60대 이상(88.0%)이 가장 높았으며, 40대(83.0%), 50대(78.3%), 30대(75%), 20대(5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 설문조사의 경우 보수성향의 노년층에서 반대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양시민들은 그와 반대인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고양시민들의 미투 및 위드유 운동에 대한 지지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과반이 넘는 지지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미투·위드유 이후, 성차별 이슈 관심도

(단위 : %)



미투·위드유 운동 이후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 이슈 등에 관심이 늘었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다수의 응답자가 미투·위드유 운동 이후 성문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늘었다 밝혔다. 다만, 성별에 따라 10%내외의 차이가 나타나 성문제 이슈에 대한 성별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사람의 13.6%가 미투·위드유 운동 이후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한 점도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4-4]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

(단위 : 건, %)

| 구분        |           | 사례수       | 남녀<br>개인적<br>관계 | 위계적<br>권력 관계 | 성차별적<br>사회<br>분위기 | 경미한<br>처벌 | 기타  |
|-----------|-----------|-----------|-----------------|--------------|-------------------|-----------|-----|
| 전체        |           | 200       | 12.0            | 26.0         | <u>43.0</u>       | 16.5      | 2.5 |
| 성별        | 남성        | 100       | 18.0            | 27.0         | <u>36.0</u>       | 16.0      | 3.0 |
|           | 여성        | 100       | 6.0             | 25.0         | <u>50.0</u>       | 17.0      | 2.0 |
| 연령        | 20대       | <u>42</u> | 19.0            | 26.2         | 33.3              | 19.0      | 2.4 |
|           | 30대       | 40        | 5.0             | 17.5         | <u>52.5</u>       | 25.0      | 0   |
|           | 40대       | 47        | 6.4             | 29.8         | <u>46.8</u>       | 10.6      | 6.4 |
|           | 50대       | 46        | 17.4            | 32.6         | <u>34.8</u>       | 13.0      | 2.2 |
|           | 60대 이상    | 25        | 12.0            | 20.0         | <u>52.0</u>       | 16.0      | 0   |
| 최종<br>학력  | 고졸 이하     | 36        | 22.2            | 19.4         | <u>38.9</u>       | 19.4      | .0  |
|           | 전문대졸      | 19        | 15.8            | 26.3         | <u>36.8</u>       | 21.1      | .0  |
|           | 대졸        | 123       | 8.1             | 29.3         | <u>43.1</u>       | 16.3      | 3.3 |
|           | 대학원 이상    | 22        | 13.6            | 18.2         | <u>54.5</u>       | 9.1       | 4.5 |
| 월평균<br>소득 | 0~200만원   | 45        | 15.6            | 22.2         | <u>40.0</u>       | 22.2      | .0  |
|           | 201~400만원 | 74        | 10.8            | 29.7         | <u>41.9</u>       | 14.9      | 2.7 |
|           | 401~600만원 | 39        | 5.1             | 25.6         | <u>46.2</u>       | 20.5      | 2.6 |
|           | 601~800만원 | 22        | 18.2            | 22.7         | <u>45.5</u>       | 9.1       | 4.5 |
|           | 801만원 이상  | 20        | 15.0            | 25.0         | <u>45.0</u>       | 10.0      |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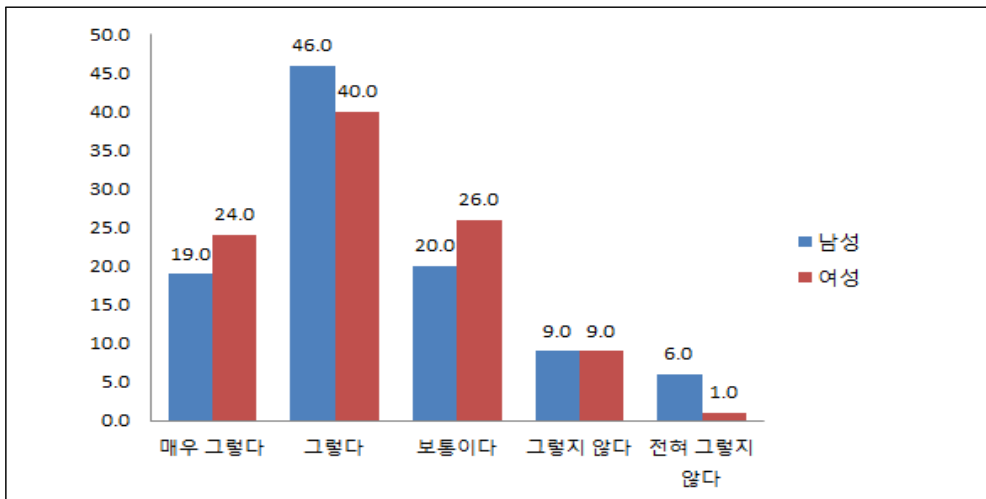
고양시민 200명에게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과 같은 젠더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설문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성차별적 사회분위기(43.0%)로 응답하였으며, 위계적 권력관계(26.0%), 경미한 처벌(16.5%), 남녀의 개인적관계(12%),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젠더문제의 원인으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시민들은 남녀 개인적 관계(22.2%)로 비교적 높게 응답한 반면에, 대학원 이상의 시민들은 성차별적 사회분위기로 응답(54.5%)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른 젠더문제 원인의 시각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유교문화권에서 성교육이 미흡한 점, 가해자의 성향, 본원의 소

극적 대응문제, 뿌리깊게 배워온 관습 등의 응답이 있었다. 법무부(2015)의 자료에도 나타나듯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과 같은 젠더문제는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문제로서, 우리사회 전반에 스며든 사회문제로서의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젠더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외재하는 환경적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림 4-2] 미투운동이 성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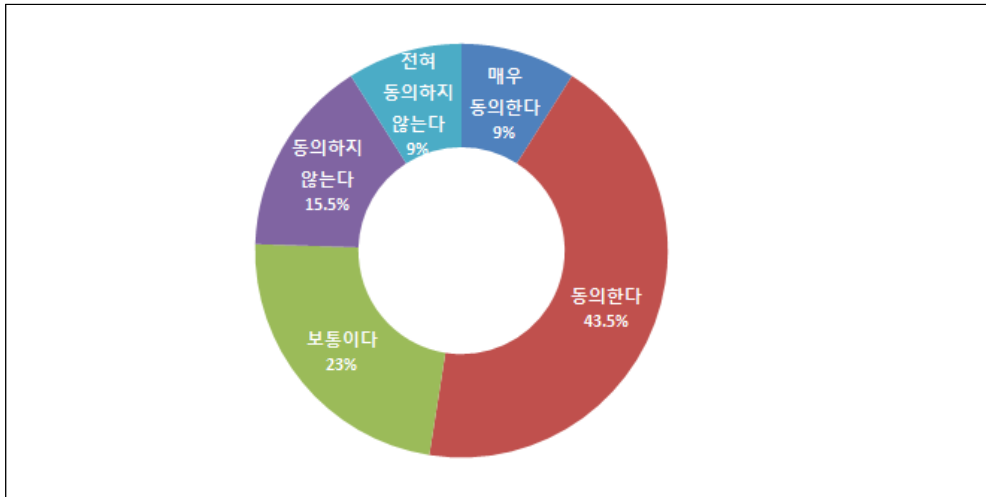


미투·위드유 운동이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켰거나,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과반을 넘어 다수(64.5%)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65%)과 여성(64%)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매우 동의하는 응답은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미투·위드유 운동과 성평등 수준의 향상 여부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득에 소득이나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다(20대, 45.2% → 60대 이상, 76%).



[그림 4-3] 미투운동으로 인한 펜스롤이나 남녀간의 갈등 여부

(단위 : %)



미투·위드유 운동으로 인해 펜스롤<sup>2)</sup>과 같은 남녀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이에 대해 찬성의견 응답(51.5%)이 반대의견 응답(24.5%)보다 높게 나타나, 미투·위드유 운동으로 인해 남녀간의 갈등을 더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연이은 폭로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표면으로 드러나 문제발생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공론화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투 운동의 대다수의 피해사례는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권력과 위계에 관계 없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도 젠더문제 담론을 제도적으로 이끌어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생산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sup>2)</sup> 펜스롤이란 “성추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내 외의 여성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2002년 인터뷰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활동에 있어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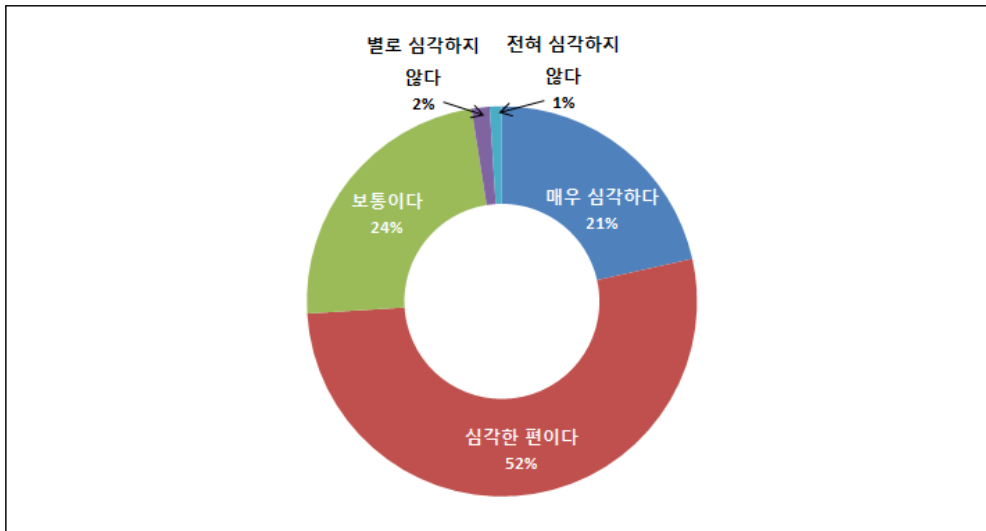
## 제2절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역할 인식조사

다음 설문 카테고리는 젠더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수행한 인식조사이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고양시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관 인지 여부, 필요한 젠더 관련 프로그램 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젠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먼저 고양시민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성희롱·성차별·성폭력 이슈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4] 우리사회 젠더문제의 심각성 인식

(단위 : %)



고양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차별·성폭력과 같은 젠더문제에 대해 대체로 심각(74%)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과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의 젠더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매스미디어를 통한 동일

사례의 전파, 자극적인 기사제목의 노출, 2차피해 노출, 기사확대 재생산 등과 같이 ‘폭로 저널리즘’을 지적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의 실제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해사례 분석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 미투운동을 계기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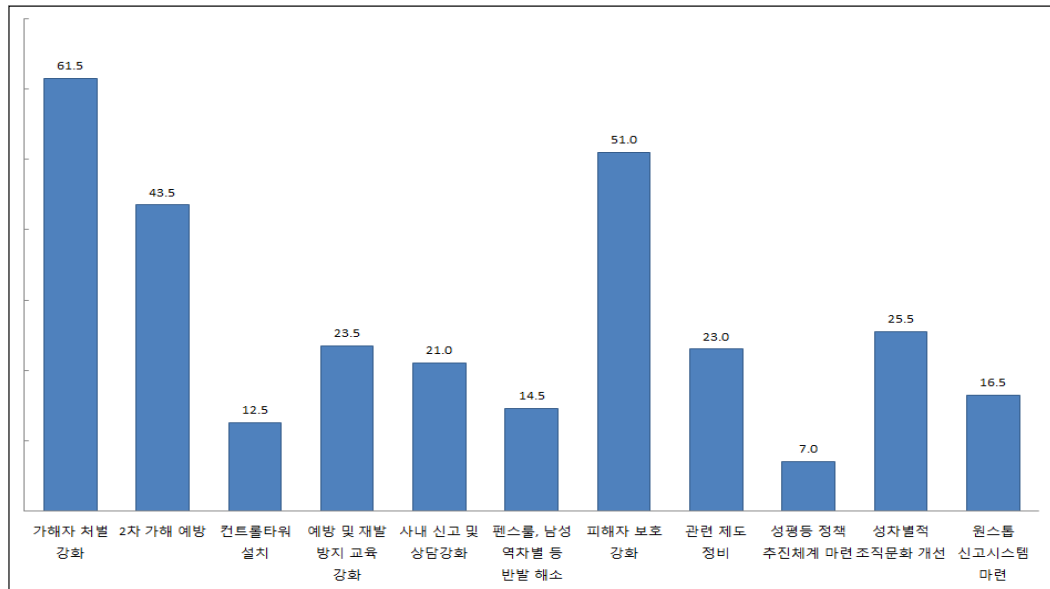
| 구분        |           | 가해자<br>처벌강화 | 2차가해<br>예방 | 피해자 보호<br>강화 | 조직문화<br>개선 | 원스톱<br>신고시스템 |
|-----------|-----------|-------------|------------|--------------|------------|--------------|
| 전체        |           | 41.5        | 8.0        | 14.5         | 9.0        | 5.5          |
| 성별        | 남성        | 39.0        | 12.0       | 8.0          | 9.0        | 6.0          |
|           | 여성        | 44.0        | 4.0        | 21.0         | 9.0        | 5.0          |
| 연령        | 20대       | 45.2        | 14.3       | 19.0         | 4.8        | 4.8          |
|           | 30대       | 40.0        | 7.5        | 20.0         | 10.0       | 5.0          |
|           | 40대       | 44.7        | 6.4        | 12.8         | 12.8       | 4.3          |
|           | 50대       | 39.1        | 4.3        | 10.9         | 8.7        | 4.3          |
|           | 60대 이상    | 36.0        | 8.0        | 8.0          | 8.0        | 12.0         |
| 최종<br>학력  | 고졸 이하     | 55.6        | 11.1       | 13.9         | 0.0        | 2.8          |
|           | 전문대졸      | 36.8        | 10.5       | 26.3         | 10.5       | 0.0          |
|           | 대졸        | 39.8        | 7.3        | 13.8         | 10.6       | 6.5          |
|           | 대학원 이상    | 31.8        | 4.5        | 9.1          | 13.6       | 9.1          |
| 월평균<br>소득 | 0~200만원   | 46.7        | 8.9        | 8.9          | 11.1       | 2.2          |
|           | 201~400만원 | 44.6        | 4.1        | 18.9         | 2.7        | 9.5          |
|           | 401~600만원 | 38.5        | 7.7        | 15.4         | 12.8       | 2.6          |
|           | 601~800만원 | 31.8        | 22.7       | 4.5          | 18.2       | 0.0          |
|           | 801만원 이상  | 35.0        | 5.0        | 20.0         | 10.0       | 10.0         |

고양시민들은 미투·위드유 운동의 계기로 고양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가해자 처벌강화(41.5%)를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14.5%), 조직문화 개선(9%), 2가가해예방(8%), 원스톱신고시스템(5.5%)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

치단체인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사이 트인 “성범죄자 알림e(<https://sexoffender.go.kr>)”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 차원에서 원스톱신고시스템 즉,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미투운동을 계기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복수응답

(단위 : %)



고양시민들이 생각하는 고양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복수응답 설문 결과이다. 1순위와의 차이점은 2차가해예방(43.5%)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소수의견들도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다. 컨트롤타워 설치(12.5%),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23.5%), 성폭력 관련제도 정비(23%) 등이 있다.

[표 4-6] 고양시 소재 젠더문제 상담기관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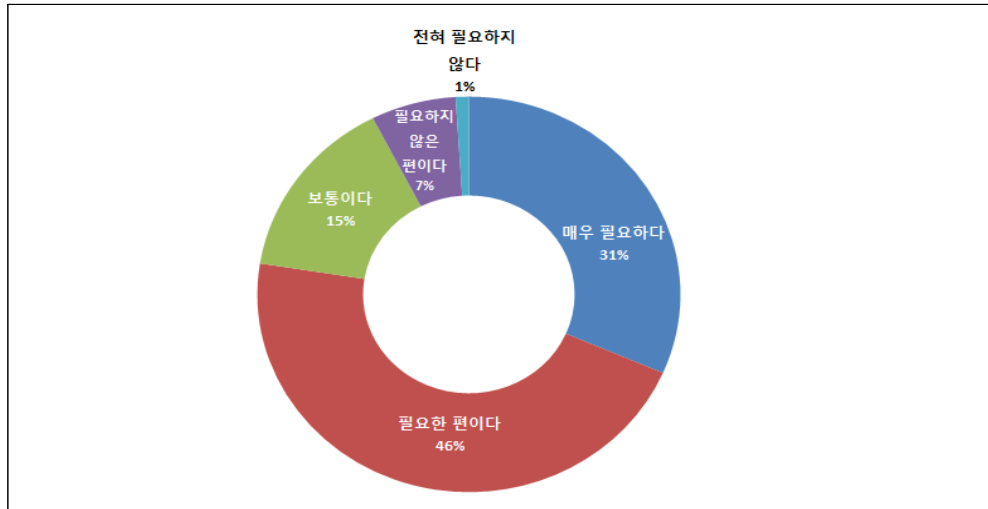
(단위 : %)

| 구분        |           | 고양여성<br>민우회 | 고양<br>YWCA  | 덕양<br>가정상<br>담센터 | 한마음<br>가족상<br>담센터 | 경기북<br>서부해<br>바라기<br>센터 | 여성의<br>전화 | 모름<br>/없음   |
|-----------|-----------|-------------|-------------|------------------|-------------------|-------------------------|-----------|-------------|
| 전체        |           | 20.0        | <u>42.0</u> | 15.0             | 16.5              | 9.0                     | .5        | 32.5        |
| 성별        | 남성        | 13.0        | <u>43.0</u> | 13.0             | 16.0              | 7.0                     | 0.0       | 38.0        |
|           | 여성        | 27.0        | <u>41.0</u> | 17.0             | 17.0              | 11.0                    | 1.0       | 27.0        |
| 연령        | 20대       | 11.9        | 21.4        | 14.3             | 9.5               | 7.1                     | 0.0       | <u>52.4</u> |
|           | 30대       | 17.5        | <u>40.0</u> | 10.0             | 17.5              | 7.5                     | 0.0       | 35.0        |
|           | 40대       | 25.5        | <u>48.9</u> | 8.5              | 14.9              | 8.5                     | 0.0       | 25.5        |
|           | 50대       | 28.3        | <u>52.2</u> | 23.9             | 21.7              | 13.0                    | 2.2       | 19.6        |
|           | 60대 이상    | 12.0        | <u>48.0</u> | 20.0             | 20.0              | 8.0                     | 0.0       | 32.0        |
| 최종<br>학력  | 고졸 이하     | 19.4        | 22.2        | 19.4             | 11.1              | 8.3                     | 2.8       | <u>44.4</u> |
|           | 전문대졸      | 15.8        | <u>36.8</u> | 31.6             | 10.5              | 21.1                    | 0.0       | <u>36.8</u> |
|           | 대졸        | 20.3        | <u>47.2</u> | 9.8              | 17.9              | 8.1                     | 0.0       | 28.5        |
|           | 대학원 이상    | 22.7        | <u>50.0</u> | 22.7             | 22.7              | 4.5                     | 0.0       | 31.8        |
| 월평균<br>소득 | 0~200만원   | 17.8        | 33.3        | 15.6             | 26.7              | 6.7                     | 0.0       | <u>35.6</u> |
|           | 201~400만원 | 18.9        | <u>37.8</u> | 13.5             | 16.2              | 13.5                    | 1.4       | <u>37.8</u> |
|           | 401~600만원 | 20.5        | <u>46.2</u> | 17.9             | 15.4              | 5.1                     | 0.0       | 25.6        |
|           | 601~800만원 | 18.2        | <u>54.5</u> | 4.5              | 9.1               | 9.1                     | 0.0       | 27.3        |
|           | 801만원 이상  | 30.0        | <u>55.0</u> | 25.0             | 5.0               | 5.0                     | 0.0       | 25.0        |

현재 고양시에는 5개 젠더관련 전문기관이 위치해있다. 5개 기관 모두 알고 있는 고양시민은 전체의 6%였다. 이중 고양YWCA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42%), 고양여성민우회(20%), 한마음 가족상담센터(16.5%), 덕양가정상담센터(15%), 경기북부해바라기센터(9%), 여성의 전화(0.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모르는 응답자도 32.5%에 달해 학교와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림 4-6] 고양시청 내 젠더문제 전담인력 및 조직 필요 여부

(단위 : %)



대다수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청 내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문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77.5%)하였다. 현재 고양시청에서는 여성가족과가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여성친화도시 업무, 성인지교육, 출산정책, 여성인력개발, 성평등기금, 성폭력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여성가족과는 2018년 세출기준 72.3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7년 44.8억에 비해 61%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같은 규모의 도시인 창원(78.8억), 수원(126.6억)과 비교했을 때 시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7] 젠더문제 전담조직과 인력배치 시 수행해야 할 업무(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 성폭력·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 |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상담기구 간 네트워크 지원 | 피해사례 조사 및 사례별 대응매뉴얼 개발 | 피해자 사후관리 |
|--------|-----------|------------------|-------------|----------------|------------------------|----------|
| 전체     |           | 64.3             | 87.0        | 41.6           | 37.8                   | 65.4     |
| 성별     | 남성        | 72.4             | 88.5        | 40.2           | 35.6                   | 59.8     |
|        | 여성        | 57.1             | 85.7        | 42.9           | 39.8                   | 70.4     |
| 연령     | 20대       | 45.9             | 91.9        | 32.4           | 56.8                   | 70.3     |
|        | 30대       | 61.5             | 89.7        | 33.3           | 33.3                   | 79.5     |
|        | 40대       | 63.6             | 93.2        | 40.9           | 34.1                   | 63.6     |
|        | 50대       | 74.4             | 81.4        | 48.8           | 34.9                   | 55.8     |
|        | 60대 이상    | 81.8             | 72.7        | 59.1           | 27.3                   | 54.5     |
| 최종 학력  | 고졸 이하     | 69.7             | 78.8        | 33.3           | 45.5                   | 66.7     |
|        | 전문대졸      | 61.1             | 88.9        | 44.4           | 38.9                   | 66.7     |
|        | 대졸        | 65.2             | 87.8        | 40.0           | 33.0                   | 69.6     |
|        | 대학원 이상    | 52.6             | 94.7        | 63.2           | 52.6                   | 36.8     |
| 월평균 소득 | 0~200만원   | 63.4             | 92.7        | 41.5           | 39.0                   | 63.4     |
|        | 201~400만원 | 72.5             | 81.2        | 44.9           | 30.4                   | 66.7     |
|        | 401~600만원 | 56.8             | 91.9        | 40.5           | 32.4                   | 75.7     |
|        | 601~800만원 | 65.0             | 85.0        | 25.0           | 65.0                   | 55.0     |
|        | 801만원 이상  | 50.0             | 88.9        | 50.0           | 44.4                   | 55.6     |

고양시민들은 성희롱·성차별·성폭력 관련 젠더문제 전담조직과 인력배치시 수행해야 할 업무로 피해자 상담과 보호(87%)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 사후관리(65.4%),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64.3%), 상담기구 간 네트워크 지원(41.6%), 피해사례 조사 및 사례별 대응매뉴얼 개발(3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젠더프로그램 참여 의사 우선순위 여부(복수응답)

(단위 : %)

| 구분        |           | 찾아가는<br>젠더인식<br>개선교육 | 젠더/성<br>평등<br>미디어<br>모니터링<br>프로그램 | 스쿨미투<br>프로그램 | 성평등정책<br>시민<br>모니터링단 | 성희롱·성폭<br>력 발생 시<br>대응방안<br>프로그램 | 감정노동<br>사업장<br>젠더감수<br>성 교육 |
|-----------|-----------|----------------------|-----------------------------------|--------------|----------------------|----------------------------------|-----------------------------|
| 전체        |           | 49.0                 | 49.5                              | 67.0         | 35.5                 | <b>68.5</b>                      | 27.5                        |
| 성별        | 남성        | 45.0                 | 54.0                              | 62.0         | 41.0                 | <b>67.0</b>                      | 28.0                        |
|           | 여성        | 53.0                 | 45.0                              | <b>72.0</b>  | 30.0                 | 70.0                             | 27.0                        |
| 연령        | 20대       | 38.1                 | 61.9                              | 66.7         | 31.0                 | <b>69.0</b>                      | 23.8                        |
|           | 30대       | 50.0                 | 52.5                              | 65.0         | 32.5                 | <b>70.0</b>                      | 30.0                        |
|           | 40대       | 55.3                 | 53.2                              | <b>68.1</b>  | 36.2                 | 61.7                             | 25.5                        |
|           | 50대       | 47.8                 | 41.3                              | 69.6         | 37.0                 | <b>73.9</b>                      | 26.1                        |
|           | 60대 이상    | 56.0                 | 32.0                              | 64.0         | 44.0                 | <b>68.0</b>                      | 36.0                        |
| 최종<br>학력  | 고졸 이하     | 58.3                 | 52.8                              | <b>72.2</b>  | 33.3                 | 66.7                             | 13.9                        |
|           | 전문대졸      | 42.1                 | 42.1                              | 68.4         | 47.4                 | <b>73.7</b>                      | 26.3                        |
|           | 대졸        | 48.8                 | 48.0                              | 67.5         | 30.9                 | <b>69.9</b>                      | 31.7                        |
|           | 대학원 이상    | 40.9                 | 59.1                              | 54.5         | 54.5                 | <b>59.1</b>                      | 27.3                        |
| 월평균<br>소득 | 0~200만원   | 35.6                 | 60.0                              | <b>77.8</b>  | 28.9                 | 75.6                             | 20.0                        |
|           | 201~400만원 | 59.5                 | 45.9                              | 62.2         | 32.4                 | <b>66.2</b>                      | 28.4                        |
|           | 401~600만원 | 43.6                 | 51.3                              | 64.1         | 43.6                 | <b>66.7</b>                      | 30.8                        |
|           | 601~800만원 | 45.5                 | 31.8                              | <b>72.7</b>  | 45.5                 | 68.2                             | 31.8                        |
|           | 801만원 이상  | 55.0                 | 55.0                              | 60.0         | 35.0                 | <b>65.0</b>                      | 30.0                        |

고양시민들은 젠더프로그램 개설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으로 응답(68.5%)하였다. 그 다음으로 스쿨미투 프로그램(67%), 젠더/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그램(49.5%), 찾아가는 젠더인식 개선 교육(49%), 고양시 성평등정책 시민 모니터링단(35.5%), 감정노동 사업장 젠더감수성 교육(27.5%) 순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 고양시 워드유 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분석내용의 종합 제1절

고양시 젠더문제 정책제안 중요 방향 제2절



## 제절 분석내용의 종합

### 1.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2018년 촉발된 미투·위드유 운동의 보편화와 성평등한 고양시를 위해 발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젠더문제와 관련된 이론 및 국내 사례, 관련 보고서 및 발간물 분석, 고양시민 인식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미투·위드유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성불평등한 직장 및 조직에서 특성이 조직 내 직간접적 성폭력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고양시 젠더문제 관련 업무현황과 타 지자체 젠더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고양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젠더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이 바라는 문제해결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양시민이 바라는 해결방법 중 하나는 관련조직과 전문인력의 채용이었다. 현재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젠더문제와 관련된 조직, 재정, 행정지원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규정된 조례를 통해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만의 특색있는 젠더관련 사업 발굴, 참여방식의 다양화, 홍보방식의 강화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2. 고양시 젠더문제 정책제안 주요 방향: 젠더거버넌스

한국사회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당시 거버넌스는 주로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만을 의미했다. 오늘날의 거버넌스는 확대·발전되어 행위주체의 포괄성, 정책의 다양성,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결합 등 협력과 참여를 모토로 시민집단과 공공영역이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석준, 2002).

젠더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권력적·차별적인 관계를 밝히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라 할 수 있다(원숙연, 2011).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의 입안과 실행, 평가단계에 성인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형태이다(강현아, 2013).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은 시민 개인에게 있어, ‘일상’과 ‘생활’과도 연결되는 밀접한 요소이다. 따라서 성평등 문화와 젠더 감수성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양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젠더거버넌스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젠더관련 차별적 상황을 서로 공유하여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하여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젠더감수성을 극복하는 열린 사회를 의미한다.

현재 금천구 마을공동체사업인 “암탉 우는 마을”은 시흥 5동 일대 및 탑동초등학교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바꾸고자 시작된 지역 풀뿌리환경단체가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노년 여성들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간·세대간 여성친화적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민들레 워커협동조합’을 구성해 재정적 자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 도서관과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단체와 연대와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젠더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휴먼서포트네트워크 아츠기”는 95%의 구성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비영리조직이다. 현재 350명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 사회참여 지원,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전업 주부였던 여성들이 파트타임 또는 전일제 근무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시 위탁보육, 휴일 또는 방과 후 보육과 같이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삶의 경험과 접목시켜 발전해나가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시급제도를 적용하고, 사업운영과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복지수요 만족, 여성자본의 축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양시는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강화, 성평등 정책 추진,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양성평등 환경 조성 등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시가 추구해야 할 젠더거버넌스 가치도 성주류화 가치를 표방하며, 여성들이 공동체적 활동을 마련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여성의 삶과 밀착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의제화·정책화하여 시의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고양시 젠더문제 정책제안 중요 방향

### 1.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양성평등 문화는 기존의 유교적 문화가부장적 문화와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교·공무원·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체계 정착이 필요하다. 양성평등 교육을 주도할 부서의 마련과 담당자의 근무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 운영체계와 비전의 마련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 뿐만 아니라, 성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성별,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젠더감수성의 차이에서 젠더문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에 맞는 교육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유사교육의 반복이라는 지적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교육 외에도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문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배제된 사람들이란 직업이 없는 사람들, 소속이 없는 노년층, 학교 밖 청소년, 공무원 외 직장인 등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예산과 시간의 부족 때문에 이를 포괄할 교육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 2. 젠더자문관의 운영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제1부시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시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젠더문제의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관련 예산,

시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전담조직·전담인력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젠더전문관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젠더전문관의 위상을 높이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젠더전문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직속으로 젠더정책팀을 구성하여 젠더전문관 1명, 행정직 1명으로 2인의 실무인력 구성·운영한다. 서울시는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 성인지정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에 국한되거나, 성평등을 ‘여성’에 국한하여 질적인 성과가 미진했다는 한계를 바탕으로 조직 내 성평등 정책 전담 직제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실행력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 기획단계부터 평가까지 시책추진의 전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양성평등정책의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젠더문제 및 양성평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지 모두가 필요하다. 젠더문화와 젠더이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이루고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가기 위해서는 젠더전문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문헌

김가은·엄유진·권기성·김연수(2018)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7(2), pp. 40-41.

김현미(2018)

「미투 운동, 왜, 지금 그리고 이후」

민무숙 · 김엘림 · 박성정 · 이준일(2005)

「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복주(2018)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근절」,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집』, pp.1-22.

심현정 · 라광현(2018)

「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한국경찰학회보』, 20(4), pp.85-108.

오봉욱(2018)

「미투 운동(#Me Too)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사회복지계의 자성(自省)적 성찰」, 『교정복지연구』 53, pp.73-97.

이수연 · 장혜경 · 김경희 (2012)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 김경희 · 강혜란 · 신정민(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은선(2018)

「미투(me to)운동의 나아갈 길과 위드유(with you)운동의 선구자들」, 『한국여성신학』, 87, pp.46-54.

유민이(2018)

「위드유(With You)운동 확산의 첫걸음 -성평등 노동현장의 의미와 현실-」, 고양인포레터, 2018.6.28, 13호.

조은설(2013)

「우리나라 여성정책 연구의 이슈변화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pp. 119-148.

## 2. 신문

국민일보, (2018.4.18)

'미투 운동 이후, 1366 성폭력 상담 51% 증가'; 김가은·엄유진·권기성·김연수,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7(2), p. 39 재인용.

여성신문, (2008.4.18)

'직장 내 성폭력, 반드시 2차 피해 낳는 이유'; 김가은·엄유진·권기성·김연수,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7(2), p. 40 재인용.

오마이뉴스, (2018.3.22)

“미투”의 시각지대,, 말 못하는 여성 직장인들; 김가은·엄유진·권기성·김연수,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7(2), p. 39 재인용.

파이낸셜뉴스, (2018.4.12)

'직장 내 성폭력 미투 후 해임·회유·왕따... 대책필요'; 김가은·엄유진·권기성·김연수,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7(2), p. 39 재인용.



## 부록\_설문지

|                                   |    |  |  |  |
|-----------------------------------|----|--|--|--|
| <b>젠더(gender)문제에 대한 고양시민 인식조사</b> | ID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은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출범한 고양시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은 정치권·언론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에 대한 고양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으로 고양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젠더문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 내용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어 그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10분정도만 시간을 내어 응답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수행기관 : (재)고양시정연구원 박종혁 부원장 (031-8073-8342, jhpark@gyri.re.kr)  
김혜인 위촉연구원(031-8073-8388, hikim237@gyri.re.kr)
- ◎ 실시수행기관 : (주)아테나컴퍼니

## I. 미투(Me Too) 및 위드유(With You)관련 인식조사

문1. 선생님께서는 미투(Me Too) 및 위드유(With You) 운동에 대하여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미투운동이란?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공유하는 고발캠페인  
#위드유 운동이란? 미투운동에 공감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성범죄에 맞서겠다는 응원 메시지 캠페인

- ①\_\_ 강력히 지지함
- ②\_\_ 지지하는 편임
- ③\_\_ 보통
- ④\_\_ 지지하지 않는 편임
- ⑤\_\_ 전혀 지지하지 않음
- ⑥\_\_ 관심없음

문2. 미투운동 이후, 선생님께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_\_ 관심이 늘었다
- ②\_\_ 변화 없다
- ③\_\_ 관심이 줄었다
- ④\_\_ 기타
- ⑤\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3.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의 젠더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①\_\_ 남녀 개인적 관계
- ②\_\_ 위계적 권력 관계
- ③\_\_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
- ④\_\_ 경미한 처벌
- ⑤\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4.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켰거나,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_\_ 매우 그렇다
- ②\_\_ 그렇다
- ③\_\_ 보통이다
- ④\_\_ 그렇지 않다
- ⑤\_\_ 전혀 그렇지 않다
- ⑥\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5.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펜스룰이나 남녀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는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펜스룰이란?**  
 “성추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내 외의 여성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 사회활동 있어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현상

- ①\_\_ 매우 동의한다
- ②\_\_ 동의한다
- ③\_\_ 보통이다
- ④\_\_ 동의하지 않는다
- ⑤\_\_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⑥\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6. 미투운동의 향후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구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문6-1. 성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6-2.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6-3. 시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6-4. 남녀간의 성대결, 성 갈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펜스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II.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 조사

문7.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의 젠더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매우 심각하다
- ②\_\_ 심각한 편이다
- ③\_\_ 보통이다
- ④\_\_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⑤\_\_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⑥\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8. 미투운동을 계기로 가장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_\_ (공공기관내) 성희롱·성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
- ②\_\_ 성희롱·성폭행 2차 가해 예방
- ③\_\_ 성희롱·성폭력 대책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④\_\_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⑤\_\_ 조작내(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강화
- ⑥\_\_ 펜스룰, 남성 역차별 등 반발 해소
- ⑦\_\_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⑧\_\_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정비
- ⑨\_\_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및 체계 마련
- ⑩\_\_ 성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 ⑪\_\_ 피해자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고시스템 마련
- ⑫\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9. 고양시 소재 젠더문제 상담기관 중 알고계신 곳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_\_ 고양여성민우회
- ②\_\_ 고양 YWCA
- ③\_\_ 덕양 가정상담센터
- ④\_\_ 한마음가족상담센터
- ⑤\_\_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 ⑥\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10. 문9의 기관 외에, 고양시청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매우 필요하다
- ②\_\_ 필요한 편이다
- ③\_\_ 보통이다
- ④\_\_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_\_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⑥\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11.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에 동의하신다면, 이들이 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8의 ①, ②, ③ 응답자 대상)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_\_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 ②\_\_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③\_\_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기구간 네트워킹 지원
- ④\_\_ 성폭력·성희롱 피해사례 조사 및 사례별 대응매뉴얼 개발
- ⑤\_\_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사후 관리
- ⑥\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12. 고양시의 젠더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중 참가하고 싶은, 또는 주변에 권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_\_ 찾아가는 관리자(간부급) 젠더인식 개선 교육
- ②\_\_ 젠더/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 ③\_\_ 스쿨미투(학교내 성폭력, 성차별 고발) 프로그램
- ④\_\_ 고양시 정책을 성평등관점에서 검토하는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 ⑤\_\_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실천적용 프로그램
- ⑥\_\_ 감정노동사업장 젠더감수성 교육
- ⑦\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문13. 고양시 내 성폭력·성희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_\_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 ②\_\_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진상규명
- ③\_\_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 3차 피해 예방책 강구
- ④\_\_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정서적 지지문화 조성
- ⑤\_\_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⑥\_\_ 올바른 성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⑦\_\_ 고양시의 체계적인 정책마련 및 강력한 집행(전담인력배치, 전담기구 설치 등)
- ⑧\_\_ 기타(직접작성 : \_\_\_\_\_ )

### III. 응답자 특성

1. 선생님의 성별은?

- ① \_\_남성      ② \_\_여성

2. 선생님의 연령은?

- ① \_\_20대   ② \_\_30대   ③ \_\_40대   ④ \_\_50대   ⑤ \_\_60대   ⑥ \_\_70대 이상

3. 선생님이 현재 살고계신 거주지는?

- ① \_\_덕양구   ② \_\_일산동구   ③ \_\_일산서구

4.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 ① \_\_고졸 이하   ② \_\_전문대졸   ③ \_\_대졸   ④ \_\_대학원 이상

5. 선생님의 현재 직업은?

- ① \_\_농/어/임업   ② \_\_자영업   ③ \_\_사무직   ④ \_\_기술직  
⑤ \_\_관리직   ⑥ \_\_전문직   ⑦ \_\_가정주부   ⑧ \_\_학생  
⑨ \_\_무직 및 기타(                    )

6. 선생님의 소득(월평균가계소득)은?

- ① \_\_0~200만원      ② \_\_201~400만원      ③ \_\_401~600만원  
④ \_\_601~800만원   ⑤ \_\_801~1,000만원   ⑥ \_\_1,000만원 초과

♣ 응답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